

기호적인 것의 時學

이영철(미술평론가)

1

엄정순은 최근 3-4년간 새롭게 주목 받고 있는 작가이다.

자신의 심리적 변화에 섬세하게 조응하는 간결하고 표정이 풍부한 형상을 통해 개성적인 작업을 벌여온 그녀의 작품들은 추상적인 형태와 감정의 표현성이 내적으로 긴밀히 결합해 있어 그 의미가 쉽사리 노출되고 있지 않은 점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특징은 기본적으로 주제의 재현을 거부하는 추상작품의 일반적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추상작품들은 형식적 <장치들>을 통해 개인의 체험과 의식, 사회 문화적 관계를 독특한 방식으로 <의미화>하기 때문에 일단은 작품으로 통하는 출구를 찾아 가는 일에서 시작해 보자.

조금씩 꿈틀거리면서 부단히 자기증식을 하거나 새롭게 발아하는 독특한 생명체 / 신경의 그물처럼 얽힌 선들 사이에서 출몰하는 응고된 구체 / 허공에서 자유자재로 흔들거리면서 방사되는 탄력적인 선들의 미묘한 결합과 진동 / 선명한 색채의 평면을 배경으로 수직적으로 세워진 형태와 등을 맞대고 있는 절단된 신체 부위 / 팽창하거나 수축하는 인체의 뼈대 혹은 섬유질 형태의 상승과 하강 운동 / 기하학적 공간에 물질 감이 돋보이는 대칭적인 형상의 배열 / 딱딱한 수목의 내부에서 움트고 튀어 오르는 생명의 소리 / 생의 긴장과 질감...

이러한 이미지들은 그녀의 추상작품에서 느껴지는 몇 가지 인상들을 나열해 본 것이다. 그것들은 시기적으로 뚜렷하게 구분되지는 않으나 대체로 1987년에 그린 개념적 공간 속에 얽혀 있는 물질성이 강조된 이상한 덩쿨 모양의 다소 초현실주의적인 분위기의 그림에서 시작해 87-88년의 불규칙적이고 울동적인 강렬한 색면이나 얼룩의 중첩 사이에서 출몰하는 선들이 추상표현주의적인 그림들, 일련의 자발성이 강한 자동기술법적 드로잉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복잡하게 얽힌 선들 사이에서 부침하는 球體의 유화작품에 이르기까지 엄정순 작품세계의 독자적인 형태 언어를 형성한다.

특히 신작 유화들에서는 이전과 달리 굵은 붓질의 채색 선이 아니라 보다 가늘고 섬세한 흑색 선이 더욱 풍부한 변화와 탄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선들과 적절하게 결합된 다양한 크기의 질감 있는 구체가 화면 전체에 구조적인 안정감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작업은 그간의 드로잉 작업에서 새롭게 얻어진 성과의 집약으로 보이며 여기에 재료의 혼합적 사용은 섬세하고 풍부한 맛을 더해주고 있다.

또한 새로운 드로잉 작품들에서는 선명하고 강렬한 배경 색채에 대단히 잘 조응하는 단순한 유기적 형상들의 풍부한 표정과 분명한 발성법이 한층 돋보인다. 또한 비록 소품이라 하더라도 빈틈없는 화면 구성과 삼차원적 현상에 걸맞게 다양한 형태로 자르고 잇대어진 변형된 화면은 보는 즐거움이 더해준다.

엄정순의 추상작품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는 선묘에서 발견되며 따라서 드로잉 작품들에서 작가의 독특한 개성이 가장 생생하게 드러남을 느끼게 된다. 그렇다고 할 때 그녀의 이미지들은 무엇을 암시하는 것일까. 일단 제목들이 암시하는 것처럼 그녀의 작품들은 대단히 시적(詩的)이다.

2

엄정순의 다양하고 강렬한 이미지 언어들은 '시적인' 특성을 지닌다.

그것은 무엇보다 그녀의 언어가 자기자신과의 일종의 자의식적 관계에 놓여 있다는 사실에서 쉽게 확인된다. 언어들의 시적 기능은 기호들이 <감각성>을 증진시키고 기호를 단지 의사소통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물질적 특질에 주의를 끌게 한다. 시적인 것에서는 기호가 대상으로부터 떨어져나간다.

즉 기호와 대상간의 평상적 관계는 깨지고 기호는 독자적으로 운동하면서 새로운 기호를 낳는다. 자의식을 반영하는 거울과 같은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엄정순의 이미지는 일종의 상징적 <약호>를 의미한다.

그것은 무엇보다 대상에 대한 지시기능을 상실한 기호들의 관계로 구성된 작품에서 보듯이 시점의 통합된 일관성에 의한 자기응시와 투사의 단혀진 회로 속에서 새롭게 발견되는 <미적인 것>과 은밀하게 대화하는 상황을 말한다.

엄정순은 비록 자신의 작품이 대상을 사실주의적으로 재현하거나 표현주의적으로 감정을 노골적으로 표출하는 방식을 취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작가 자신은 그림을 자신의 삶과 분리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점에서 그림을 자신을 둘러싼 존재에 대한 복합적인 상호작용의 <내적 필요성>의 산물로 받아들이고 있다. 사실상 이것들은 우리 자신의 존재의 뿌리들에 닿아 살아 숨쉬는 교류를 회복하고자 하는 욕구의 산물이기도 한데 엄정순의 그림들에서 그것들은 단힘과 열림, 긴장과 이완, 결박과 풀림, 거침과 부드러움, 따스함과 차가움, 착잡한 혼란과 질서를 지향한 평형 등이 끊임없이 반복 교차됨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양극적인 것의 부단한 상호 침투와 분열의 과정은 어떤 형태로든 고정되는 것을 경계함에 따라 오히려 화면에 지속적으로 신선함과 생기를 불어 넣어주고 있다. 이러한 신선한 활력은 그녀의 언어가 인습적 혹은 규범적인 기호나 이미지, 의미의 차원을 넘어 새로운 형태의 언어를 찾아가고 있는 노력에서 잘 드러나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발견된 단순하면서도 함축적인 유기적 형상은 어떤 본질적인 아름다움을 공감하게 한다. 그것은 생태학적 흔적을 지닌 다분히 촉각적인 심리적, 리비도적 형태(알,완두콩,공,흡입기,정자)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녀의 추상작품들은 독특하게 신비스럽기도 하고 에로틱한 분위기를 드러내기도 한다.

<노스탈지아 : Nostalgia>라는 제목의 작품들은 기억의 심층부에 간직된 복합적 이미지의 메타포로서 신경증적 자기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자 현실원리로부터의 심정적 이탈을 암시한다. 球體는 기억과 꿈과 환상의 복합물로서 복잡하게 착종되어 얽혀있는 민감하며 유동적인 선들이 덩어

리로부터 탈출하려 하나 또 다시 복귀해야 하는 운명을 암시한다.

3

이러한 기호적인 것이 선호는 이미 초기 추상 작품들이 경우에서 보여진다

입체적 형태를 추상표현주의적 특성과 결합시켜 자유롭고 신속한 필치와 신체적 동작의 즉발적인 형상적 각인을 실험하는 경우에도 본질적으로 기호적인 이미지의 관계와 중복을 시험해 보이는 경향이 강했다는 사실이다. 이점은 그녀가 새로운 형태의 추상을 모색해가는 싹을 처음부터 자체 내에 키워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녀에게 있어서 기호적인 것은 다분히 유동적이고 다원적이며 정확한 의미에 대한 일종의 유쾌한 창조적 <과잉>으로 감지되다. 그것은 모든 고정되고 초월적인 의미작용에 반대하는 속성을 띠고 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유동적이고 혼란스럽고 부드러우며 감각적인 이미지를 통해 남성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세계(추상적 진리, 엄격한 구분, 고정된 본질의 세계)에 대해 알게 모르게 저항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것은 미묘하고 섬세한 여성특유의 감각이 독특한 생명 형태(즉, 음과 양이 긴밀하게 통합되어 매우 유기적이고 부드러우며 외적 충격에 의해 금방 분열되거나 변형될 조짐을 보이는 형상)을 통해 이분법적 대립에 기초한 지배에 저항한다는 의미이다. 물론 이러한 가정은 작품의 전체를 내적으로 일관하는 것으로 가정할 수는 없으며 단지 징후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다.

엄정순은 3-4년간 비교적 집중된 문제의식으로 성실하게 작업해 온 작가이다. 그러나 문제는 대상 세계와의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연관을 포기한 상태에서의 탈출할 수 없는 이미지의 감옥에서 자신의 가능성의 조건들을 찾는 일이 궁극적인 난제를 인식하는 일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난제에 대한 해결은 기호적인 것의 끝없는 유희에 함몰하지 않고 그 충동의 에너지를 사회적 의미와 어떻게 일치시킬 것인가에 대한 힘겨운 탐색에 의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엄정순의 회화작품은 내용에 있어서 기법에 있어 부단한 변형의 가능성을 내포하는 유동성을 지니고 있다. 추상작품의 새로운 비전을 행한 탐색에 예지와 힘을 보여주기를 기대해본다.